



“금 캐러 가자”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출전중인 한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19일 밴쿠버 킬리니 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도 함께 뛰다”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9

사랑의 향기 신희 우주 향해 끝없는 질주

고흥우주마라톤클럽

‘우주를 향해 끝없이 달린다.’
 지난 2004년 결성된 ‘고흥우주마라톤클럽’(회장 황인호·이하 ‘고마클럽’)의 슬로건이다. 항공우주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자부심을 갖고 이번 대회에서 포기없는 질주를 다짐했다.

지난 2006년 고희지역 3개 마라톤동호회가 하나로 뭉쳐 다시 태어난 ‘고마클럽’은 현재 회원수가 60여 명으로 해마다 규모가 커져가고 있다.

이들 중 ‘달리기 고수’도 상당수 있다. 류영석씨는 동호인으로서의 영예스러운 ‘서브-3’(풀코스 3시간 이내 완주)기록 보유자로 최고기록이 2시간 45분이다. 총무를 맡고있는 김태근 씨도 최고기록 2시간 48분으로 ‘서브-3’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았다.

풀코스 완주자도 30여명에 달한다.



울트라마라톤대회에는 명창조·양승호씨 등 6명이 출전해 철각을 과시하기도 했다.

부부회원은 양승호·이미경 부부 등 무려 7쌍이나 있어 가족같은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모임의 ‘말행’인 64세의 김순모씨는 35년 달리기 경력으로 보스턴마라톤대회도 출전했다.

일주일에 두번씩 달리기 모임을 갖는다. 수요일엔 오후 7시 공설운동장

에 모여 10km 정도 달리고, 일요일엔 공설운동장에서 능가까지 왕복 32km 장거리 훈련을 실시한다.

‘고마클럽’은 올해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이번 3·1절 마라톤대회부터 풀코스와 하프코스를 완주한 회원들의 경우 불우이웃돕기 성금 3천~5천원씩을 모으기로 했다.

올부터 봉사활동에도 앞장서겠다는 ‘고마클럽’의 힘찬 질주를 기대한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본드걸’ 연아, 오늘 밴쿠버 입성



선수촌 대신 전담팀과 함께 생활하며 ‘007 작전’ 수행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피겨 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하는 피겨러 김연아(20·고려대)가 모든 준비를 끝내고 마침내 밴쿠버에 입성한다.

김연아는 20일(한국시간) 오전 전지훈련지인 캐나다 토론토를 떠나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밴쿠버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연아의 밴쿠버 생활은 그녀의 쇼트프로그램인 ‘제임스 본드 메들리’처럼 ‘007 작전’이 될 전망이다.

김연아는 밴쿠버 시내의 한 호텔에서 어머니 박미희 씨와 브라이언 오서 코치, 물리치료사 등 ‘연아 전담팀’과 함께 생활하면서 오로지 훈련에만 집중할 예정이다.

선수촌에 머물면 김연아와 오서 코치만 입촌할 수 있어 물리치료사와 매니지먼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최상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선 전담 물리치료사의 꾸준한 도움이 필요한 만큼 일부 금지 않은 시선에도 선수촌 대신 호텔을 선택했다.

김연아는 밴쿠버에 도착하고 나서 다음날 곧바로 공식 훈련을 시작한다. 21일 첫 훈련은 대회가 치러질 피서픽 폴리세움이다. 김연아가 20일 밴쿠버 도착을 선택한 이유도 곧바로 실전이 펼쳐질 메인링크에서 훈련하겠다는 계산이 깔렸다.

한편 김연아와 메달을 다투는 아사다 마오는 하루 늦은 21일 도착해 대회 준비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이상화 1,000m 23위

500m 금메달에 빛나는 이상화(21·한국체대)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천m에서 하위권에 머물며 메달 추가 달성에 실패했다. 이상화는 19일(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리치먼드 올림픽 오벌에서 치러진 대회 여자 1천m 결승에서 1분18초24를 기록, 36명의 출전 선수 가운데 23위를 차지했다.

한편 전남 소속 바이애슬론 대표인 이인복(26·보성군청)과 문지희(22·진도군청)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아쉽게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인복은 19일 캐나다 휘슬러 올림픽파크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남자 20km 개인에서 56분24초5로 71위를 기록했다. 여자 15km 개인에 출전한 문지희는 48분53초9를 기록해 73위가 됐다. /연합뉴스

밴쿠버 금빛 질주 인터넷중계 휘파람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의 연이은 ‘금빛 질주’ 덕택에 포털 등의 인터넷 중계 서비스가 ‘밴쿠버 특수’를 누리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포털 다음의 경우 금 1개, 은 1개를 수확하며 최고의 ‘깜짝 스타’로 부상한 신세대 스프린터 모태범이 남자 1천m에서 은메달을 따

낸 전날 최고 동시접속자 수가 13만5천명에 달했다. 더구나 전체 접속자 수는 무려 140만여명에 이를 정도였다.

다음 뿐만 아니라 동시접속자 10만명 제한을 뒀던 네이버도 경기가 열릴 당시 일찌감치 한계점을 찍었고, 네이버도 10만명 가량의 최고 동시접속자 수를 기록했다.

포털 외에 동계올림픽 인터넷 중계에 들어간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 역시 같은 날 8만여명의 최고 동시접속자 수를 기록하는 성과를 올렸다. /연합뉴스

한국선수단 주요 경기일정

- 〈20일〉 크로스컨트리= 여자 7.5km·2주회 결선 (오전 6시~오전 6시50분)
- 〈21일〉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천500m 결선 (오전 9시15분~오전 11시)
- ◇ 쇼트트랙= 남자 1천m 결선, 여자 1천500m 결선 (오전 10시45분~오후 1시15분)

생활 게시판

환측

▲이영진(초대대 교수)씨 삼남동근(광주방송 서부방송본부 기자)군 정갑용(전 무안일로 농업)씨 장녀 초아(목포 한국병원)양=27일(토) 오후 1시 목포 신안비치

호텔 2층 블루힐.

▲김선주·이성숙씨 아들 민관군 강기식·김경진씨 딸 주연양=27일(토) 오후 1시 서울 메리어트 호텔 연회장. 피로연 20일(토) 오후 5시 광주 메리어트 웨딩홀 2층.

▲최명연(前 한화여수)·박윤이씨 아들 최준 군 공상순(여수시청)·박인숙씨 딸 진희양=27일(토) 낮 12시30분 여수 학동 선소 앞 마리나웨딩홀 2층.

무음

▲나한수씨 별세 상근·상호·상희·주심·혜심씨 부친상=발인 21일(일) 무등장례식장 203호. 062-515-4488.

▲마복조씨 별세 성상·영자·선자·평숙·선희·효녀씨 부친상=발인 20일(토)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마음까지 편안함 - 금호장례식장 227-4000

故 김정애(여: 84세)
 주 김준호 / 96년, 김현호 / 김순자
 김현숙 / 이영희, 김현호 / 김아영
 유족 김희숙 / 임순희, 김혜경 / 신인서
 김광민 / 제1남

향년 82세
 호실 2월 19일
 발인 2월 20일
 장지 부친 배니산면
 심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넓은우치장 - 정갈한 음식!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약속!

프리드

대한민국장례문화

15년 선대총합상조가 책임지겠습니다

가임문의 1566-4499

한대총합상조 전속모택 노주현

CBS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정열을 찾는 리더십을 찾습니다

2010 CBS사원 공개채용 안내

이 모집에 응시하시라

직군	직책	인원	응시기간
1차	기초	1명	2월 22일
	중급	1명	2월 22일
	고급	1명	2월 22일
2차	기초	1명	2월 23일
	중급	1명	2월 23일
	고급	1명	2월 23일
3차	기초	1명	2월 24일
	중급	1명	2월 24일
	고급	1명	2월 24일

07 문의: 02-3781-1111

채용시험: 2월 25일(토) 09:00~12:00

채용결과: 2월 26일(일) 10:00~12:00

채용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2 CBS빌딩 10층

Media Group CBS